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17과 중생(거듭남)

[요3:3-5]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관문이 회개라면 중생은 회개의 결과이다. 출생과 비교하여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회개는 임신이고, 중생은 출생이다. 임신하고 출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중생해야 한다. 이제 중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자.

1. 중생이란 무엇인가?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다시 바르게 태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요3:1-7]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태어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전제에는 혈육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성령과 물로 태어난다. 생명의 근원이 다르게 태어나는 것이다.

2. 왜 중생해야 하는가?

[요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육으로 난 자들이다. 육으로 난 자들은 사망이 조장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영생할 수 없다. 그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이다. 영생하려면 영생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거듭나는 생명은 성령으로 얻는 생명이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다.

[롬8: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히9:14]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은 생명이시며 성령은 영원하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들이 영생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듭나기를 열망할 것이다.

[롬8:5-7]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고전15: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3. 육으로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창6: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이라는 말은 범죄한 사람들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즉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다.

개역한글판 성경에는 육체가 됨이라는 말의 난하(欄下)에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는 주(註)가 붙어 있다. 구역에는 “범과함으로 육체가 됨이라”고 되어 있다. 즉 육체라는 말은 범죄한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유19]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이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그에게서 영생의 생명이 떠났다. 곧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 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사망이 주장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육이라고 한다. 이런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들은 그 상태 그대로는 마침내 완전히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전혀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다.

4. 어떻게 중생하는가?

[요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물은 침례를 뜻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상징한다.

[벧전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엡5: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침례는 회개하고 받는 예식이다. 회개를 공부할 때 말한 대로 회개하고 영생의 생명이 잉태된 것을 뜻한다면 중생은 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요16:13-15]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요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상의 말씀들을 보면 물은 침례를 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뜻한다. 또한 예수께서는 성령의 역

사도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며,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셨다.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말씀으로 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벧전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눅8: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영생의 생명의 씨이다. 이 생명의 씨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주관하게 되면 중생한 것이다.

5. 거듭남의 근거는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은 육에 속한 자, 곧 육이 영이 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는 말이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완전히 처리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한다. 이것을 다 이룬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벧전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것처럼 도한 침례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다.

[벧전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회개와 침례와 중생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 회개한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며 그런 사실을 우주 앞에서 침례로 확증하는 것이다.

6. 거듭나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거듭남의 원리를 설명했으나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느낌이 있다. 그것의 구체적이고 실제적(實際的)인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자.

[요1:12,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요15:4-7]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생활하면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나 말씀이 그냥 참고 사항에 불과하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시험해 볼 수 있다.

7. 거듭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고후13: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시험해보라고 한다. 어떻게 시험하는가?

[롬8:5,6]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의 생각의 경향이 육신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를 스스로 살피면 거듭났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거듭난 사람은 그 사고방식이 온전히 성경적이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 생각이 완전히 말씀적이고 예수적이다.

[고후10:3-6]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6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생각의 경향은 성경적인지 아니면 육신적인지 스스로 시험하고 만일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게 하여 거듭난 삶을 이루도록 하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일을 이루려고 우리 마음에 역사하신다.